양해윤/ 예전건축건축사사무소
by Yang Hae-yoon, KIRA

우리들의일그러진자화상

Our Twisted Self-portrait

우리는우리의일그러진모습을매일보고도일그러진모습으로보지않는다. 매일매일보니늘같은모습으로보인다.

그러나오랜만에보는사람들은우리의일그러진모습을보고알게된다. 우리는우리가너무너무잘사는나라로생각한다. 힘든일은하인을시키고지저분한일은하녀를시키고옛날양반시대로돌아간듯하다.

10여년전, 전세는살아도차는있어야한다고너도나도차를사더니이제는경차를타면측은하게보는시대다. 용기없이는 탈수없는차가 경차가되어버렸다. 너도나도기름한방울안나오는나라에서중형차, 대형차로 바뀌는추세다. 그런데이제는한계단높아져대형차는외제차로바뀌어가고있다. 한번교통사고라도나면몇천만원을물어내야하고보험에는외제차와의사고시부담하는항목이따로있단다.

우리는진정부자라서점점좋은차를타는가, 기름한방울안나는나라가기름값은천정부지로올라가는데….

요즘 건축사는 돈을많이버는 士자의 부정적통계에서조차빠졌다. 고려할만한가치가 없어서일 것이다. 그래도우리는우리의모습이돈잘벌때, 돈잘쓸때에서조금도후퇴하는모습을볼수없다. 아니면숨길수밖에없는사회풍토때문인지도모른다.

몇년전만해도직원 4~5명이면영세한편이고최소 10명은되어야했다. 그런데지금은잘나갔던건축사도 2~3명은괜찮은편이다.

정부가 우리의 GDP를 16,000불이라니 건축사도 그 수준으로 생각하나 보다. 16,000불로 똑같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랴!

한때싸구려건축설계로치부되던다가구, 다세대설계는정부의정책에밀려눈씻고찾아보기조차힘들다. 경제성이없어지을수없기때문이다. 마치누가저인망으로치어까지긁어간바다밑처럼.

일이없는만큼설계를하고자하는지원자도줄어들고일을통하여경험을가질기회조차없으니우리는풍전등화(風前燈火)와같은시기에살고있는데, 이러한현실을언제까지침묵으로만끌고가려는지 안타깝기만하다. 인증제를하여외국회사가몰려오면큰사무실도큰일이다. 건축사들만통화가치를반으로낮출수도없고….

건축사만이라도현실을바로보고대책을논의하는지도자가필요하다. 사회에휩쓸려가다보니주5일제근무로한달에 20일 일하기도 바쁘다. 30일 일해도 살기 힘든 세상에 배곯으며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야 한다. 선진국에서조차 주 6일 근무를자청한다는기사까지나오는데노는것싫은이없고잘먹고좋은차타는것싫은사람있겠는가.

매일뛰어오르는집값에오르는세금, 땅에떨어진기초질서와공직자들의끊임없는비리는힘든건축사들의마음을더욱더허탈하고쓸쓸하게한다.

건축사, 식구는 많고 먹을 것은 없는 안타까운 현실

건축사의 살길 찾기, 협회가 앞장서야

경차는 용기없인 탈 수 없는 차가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

현실 정확히 보지 않으면 건축사 단체 부도 위기 올수도

언제우리는경차를타도, 힘들고더러운일을마다않는가슴이행복한사람이될는지….

‘70년대말네덜란드가인구천만명에자전거가1,400만대였던시절나는잠시그곳에서건전한인간과건전한사회와건전한국가를보았다.

유럽경제가아주아주힘들었던그때그들은검소하고절제된생활습관으로위기를잘넘기는천국의모습을보여주었다.

북해유전이있는산유국인데도국민차는604cc다. 아우토반을국민차를타고달린다.

자전거도로, 자전거신호, 자전거의생활화는생활에서국민을건강하게하고검소한습관을가지게한다.

우리는이제가식의옷을벗고참모습을보여야한다. 참모습을보고함께노력하여이어려움을견딜수있도록국가를비롯하여모든단체의지도자가모범을보여야할때이다.

건축사의아픔을아는이얼마나될까. 현실을알면일을수주못할까봐위장술만늘어간다.

우리는모든기준을하향조정할때가되었다. 자체적으로씀씀이를줄이고부담을줄여야한다. 있는자만살고없는자가죽은다음에는있는자가죽을차례이기때문이다. 모두가함께살수있는지혜로운사고가필요할때다.

건축사가몇명씩합종연횡(合從連衡)하여합치는모습은살아남기위한몸부림이지만조금더시간이흐르면건축사의수가직원의수보다많을지도모른다.

과부가과부사정을알고홀아비가홀아비사정을안다고했다. 건축관련모든협회지도자들은회비조차못내는회원들의사정을알아야하며어려워도회원들이협회를떠나지않게힘이될수있도록체질을바꾸고지출도과감히줄여회원의부담을덜어끝까지회원과고락을함께하는협회가되어야할것이다.